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올해 재해대비 금호방조제 비상대처훈련 실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5.01 15:25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지난달 29일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위치한 금호방조제에서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한 비상대처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소방서, 긴급복구동원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시 금호방조제 배수갑문 시설물 손상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의훈련으로 상황별 위기 대응과 긴급 복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비상대처훈련 전(前) 금호방조제 비상대처계획(EAP) 등 안전관리실태 자체 점검을 하고 이번 훈련에서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른 상황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박형수 단장은 "비상대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